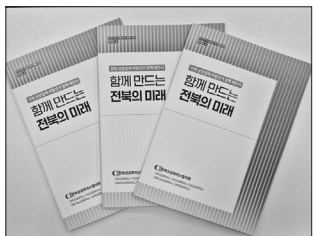


전북 상공인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과제 제안

전북상협,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경제 활성화 위한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 정책 제안서 발간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한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일 전북 상공업계의 정책 제안서인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를 발간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각 정당과 도내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에는 전북 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4대 분야 22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북 배려 △새만금 국가

로 건설계획 반영 △새만금 신항만 기능 정상화 △북합리조트 조성 등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세제 및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지방 취업 청년 세제·금융 혜택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부담 완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차등 적용 △기업승계 요건 완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노동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분야에서는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이행 지원 △대기오염 물질 측정 방식 개선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6개 과제가 제안됐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단순한 요구사항 나열이 아니라 현장의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 보고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를 적극 수용해 전북 경제 활성화를 마중물로 삼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해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민생 공약과 함께 지역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인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정당 및 후보자들과 협력을 이어가며 제안 과제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페이퍼,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고용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전주페이퍼가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확대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최근 생산·환경·기술연구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전주 본사 사내 교육센터에서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페이퍼는 최근 생산·환경·기술연구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전주 본사 사내 교육센터에서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 측은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인재의 역의 유출을 막고 청년 고용시장에 기여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실제로 전주페이퍼는 최근 5년간 총

62명의 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약 74%를 전북 지역 출신 인재로 선발해 지역 중심 채용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1965년 설립된 전주페이퍼는 국내 최대 신문용지 제조기업으로, 본사를 전주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신문용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골판지 등 패키징 소재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종합 제지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생산능력 확대와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지 산업 내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국내 유일의 한지 박물관을 운영하며 전통문화 보존과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훈련과 안전 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약 업계와 손잡고 세계 시장 진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베서더서울강남 호텔에서 국내 주요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약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삼광(주) 한동우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제미결, 팜한농 등 국내 주요 농

약 기업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농약 산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의 주요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농약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을 발판 삼아 남미 전역은 물론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주요 미진출 국가로의 시장 확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업계 대표들은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등록 절차 지원과 연구개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향후 농약 분야 연구개발 지원 계획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 정부 간 의견 교류 기회를 확대해 민간협력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고유가 시대 주유비 지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진행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일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반영해 오는 29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에게 5만원 상당의 주유권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주유권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 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사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형 쿠폰으로 구성돼 이용자가 선호 브랜드와 접근성이 좋은 주유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으로는 '희망장려금'도 꼽힌다. 올해 전북지역 희망장려금 지원 규모는 총 12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원보다 5.83% 늘

었다. 희망장려금은 도내 14개 시·군별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가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원이 마감된 상태다. 이에 다른 시·군 가입 희망자들은 잔여 예산을 확인한 뒤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2분기(4~6월) 노란우산 기준이율도 기존보다 0.2%포인트 인상한 3.2%로 결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이나 사망 시 지급되는 이율 역시 기존 3.3%에서 3.5%로 상향돼 가입자의 부담 적립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정규직 5명 채용... 전원 지역인재 선발

전북개발공사가 2026년 상반기 정규직 5명을 채용하며, 전원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상반기 채용 규모를 일반직 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2명, 회계 1명, 토목 1명, 건축 1명이다.

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내 실업을 해소와 지역인재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 출신 인재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능력 중심 평가를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진행되며, 5월 9일 필기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뒤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한전 전북본부, 전주역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1일 전주역 일대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1차 에너지 절약 동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홍보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전력 사용량 절감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절전 행동 요령과 승용차 5부제 참여 방안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번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을 '에너지 절약 홍보의 날'로 지정해 정기적인 거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